

종합·해설

대선 경선 구도 동교동계의 구상은

손학규-정동영-김근태 어제 회동

“孫·친노세력 아우른 대통합 원해”

범여 연석회의 조속 개최 합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잇단 '대통합' 발언에도 불구하고, 27일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소통합' 식 합당을 단행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DJ를 정점으로 한 동교동계가 '소통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범여권 대통합을 통한 대선 그랜드 플랜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 참석한 뒤 광주 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통합신당의 통합과 추석 전 독자 후보 선출'에 대해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 대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해, 두 당간 합당과 독자후보 선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장관은 또 "사실 대북송금 특금 등으로 가장 심한 피해는 김

손학규 합류는 바람직한 현상

민주당내 독자후보론 부정적

전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으로 제가 피해를 받았지만 그런데도 다 함께 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대통합을 해서 대선 후보 모두가 한 무대에 올라 검증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손 전 지사의 범여권 합류 선언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동교동계 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노적(露積·한군데에 쌓인 곡식)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쪽(범여권)은 누가 노적에 불 지른 형국이다. 불에 타다 남은 싸레기 주워 봐야 얼마나 많이 쪼들느냐"며 "특정인 배제론"에 의한 소통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동교동계의 반응은 비단 소통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범여권의 구체적인 경선구도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즉 범여권의 통합 및 국민경선 구도는 손 전 지사뿐 아니라 친노 등 범여권의 모든 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동교동계의 김모씨는 "동교동계에서는 서울·경기를 대표하는 손학규, 충청의 이해찬, 호남의 정동영, 영남의 김혁규, 여성계의 한명숙, 시민사회세력의 문국현 등이 모두 링에 올라 경쟁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구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선의 장이 마련되면 연말 대선에서 분

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동교동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의 대권 구도가 정치권에서 추상적으로 거론되긴 했지만 동교동계 측에 의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동교동계가 현 민주당 소속 인사 중에 단 한 명도 후보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총선을 겨냥하며 대선 구도를 그리는 정계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을 뿐 아니라 대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범여권의 경선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김씨는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배제론을 펴면서 대통합을 거부하고 있는 박상천 대표와 김한길 대표 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민주당 내 독자후보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원내 3당으로 출범

세불리기 난항 '한계'... 앞길 험로 예고 범여권 세력판도 3각 체제로 재편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양당 지도부와 중앙위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양당 합당추진기구 합동회의를 갖고 '중도통합민주당'(약칭 통합민주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범여권 세력 판도는 열린우리당(73석), 통합민주당(34석), 40여 명의 탈당과 의원들의 3각 체제로 재편됐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의 앞길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통일민주당 출범식에서부터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냈다.

이날 박상천 공동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선기획단'을 설치, 대선 후보 경선규칙을 만들고 '대선 후보 경선위원회'를 발족시켜 9월 추석 연휴 이전에 대선 후보를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한길 공동대표는 "통합민주당은 중도개혁 대통합을 구현하고 담아내는 시무이며, 이 시무 안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이뤄지고 대선승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단일 경선을 강조, 박 대표의 통일민주당 후보 선출 이후 후보단일화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범여권 합류 선언 이후 탈당파를 중심으로 급류를 타고 있는 대통합 움직임에도 통합민주당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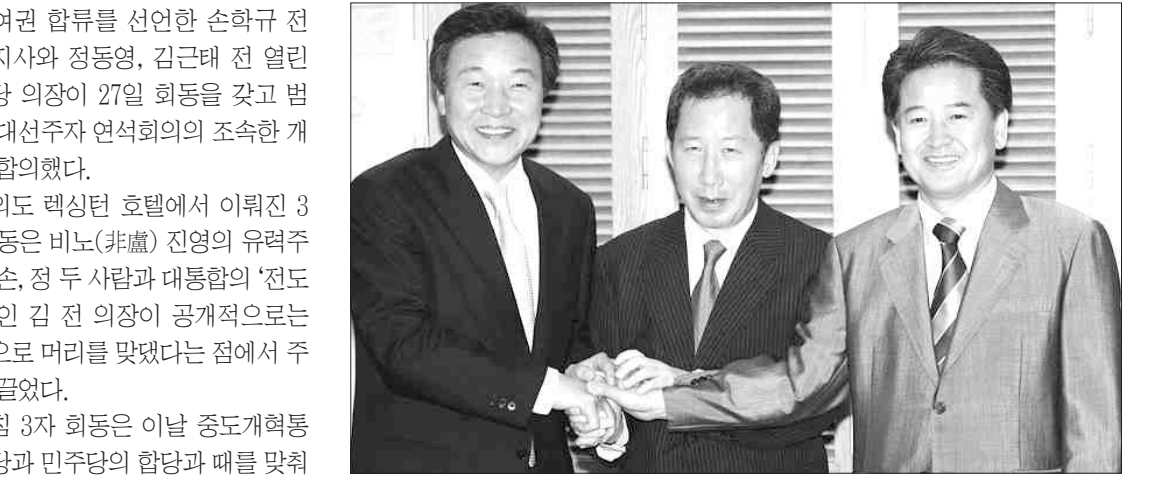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도통합민주당 합당대회에서 김한길, 박상천 공동대표가 손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정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초 통합민주당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됐던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서면서 단 한 명의 의원들도 합류하지 않는 사태가 현실화됐다.

한편, 범여권 제 정파 가운데 아직까지 최대 의석이 있는 열린우리당의 앞길도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대통합을 계속 주장하면서 탈

당파 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을 규합,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드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우리당을 사수하겠다는 세력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전 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범여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경선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대통합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ium@



손학규 전 경기지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이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회동 모두에 "대의(大義)가 같고 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열심히 잘 따라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전 의장은 "내가 불쏘시개가 되고 서로에게 불쏘시개가 되는 '불쏘시개 정신'이든 대통합도 이를 수 있고 땅에 떨어진 희망도 주워담을 수 있으며 못 뛰어넘을 게 없다"면서 "한나라당처럼 이전투구, 진흙탕식이 아니라 공정하고 축제 같은 경선이 돼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손 전 지사와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다짐했다. /연합뉴스

“이 자리는 대통합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자 김 전 의장과 뜻이 맞는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열심히 잘 따라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전 의장은 "내가 불쏘시개가 되고 서로에게 불쏘시개가 되는 '불쏘시개 정신'이든 대통합도 이를 수 있고 땅에 떨어진 희망도 주워담을 수 있으며 못 뛰어넘을 게 없다"면서 "한나라당처럼 이전투구, 진흙탕식이 아니라 공정하고 축제 같은 경선이 돼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손 전 지사와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다짐했다. /연합뉴스

이들 3인은 김 전 의장의 주선으로 1시간 가량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김 전 의장이 제안한 후보자 연석회의가 대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우 의원이 전했다.

우 의원은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미래로 가기 위해 대통합이 필요하며, 시대의 대의이고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대통합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야 하는데 세 분이 뜻을 같이

朴 “검증 회피말라”... 다스 의혹 공세 李 “폭로 그만... 원칙으로 돌아가자”

격화되는 李-朴 검증공방

한나라당 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 검증공방의 수위가 수그러들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27일 '다스'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이 전 시장 측은 구체적인 맞대응 삼가면서 소모적인 검증공방의 자제를 제안했다.

이 전 시장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 소유 회사의 부동산 매입 및 인근 지역 뉴타운 지정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이 전 시장 측이 당 검증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처남 김재정씨의 재산목록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며, 이 전 시장 주변의 재산 문제를 검증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전 대표 측은 우선 다스가 100% 지분이 있는 흥은프렌치가 이 전 시장이 현직에 있던 2003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직후 인접한 천호동 일대가 뉴타운에 지정된 것과 관련, 사전 정보유출 의혹 등에 대

해 "피하지 말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이 전 시장 측을 압박했다.

이 전 시장 측은 "박 전 대표 측의 거듭된 '다스'(현재 다스 컨설팅) 관련 부동산 의혹제기에 대해 '하위폭로'라고 일축하면서도 구체적인 맞대응을 삼갔다. 오히려 박 전 대표 측을 향해 '당의 화합을 위해 원칙으로 돌아가자'며 소모적인 검증공방의 자제를 제안했다.

'무차별적인 폭로'와 '피리물기식 설전'은 두 주자 모두의 공멸을 자초해 결국 범여권만 이롭게 할 공간이 큰 만큼 김 전 대표가 정한 원칙대로 검증은 당 검증위에 맡기고 후보들은 치열한 정책경쟁으로 승부를 보자는 것. 여기에는 갈수록 격화되는 검증공방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지율 1위 후보로서 '화합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후보검증에 '열인'하는 듯한 박 전 대표 측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박 전 대표 측의 의혹제기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무대응 전략'으로 검증 파고를 넘어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광주본원 [구시청사거리 중흥동] 529-8111.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개강 7월 2일 [첫진도 주,아반].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서울본원: 361-8111. 북구본원: 529-8111.

공인중개사 전문수석 배출. 7월 2일 첫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2개월~10개월, 주택관리사 2개월~10개월, 주택관리사(회계포함) 주말반(토일) 개강일: 7/7~9/1. 모집대상: 혼란도중 또는 혼란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할 예정인 분.

여름 방학 대특강!! 국가직 5만여명(5년간 모집) = 7.9 공무원 대특강.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공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복지직, 전산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시월 2일 개강. 7월 2일 주야반 모집.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이름방학 79급 공무원 대특강. 이론편 (2개월연성), 실용편 (1개월연성), 농업직, 서울시 7월 8일 시험장차량예약,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7월 2일.